

문화

한국 대표 연극 연출자들이 말하는 공연예술제 다국적 프로젝트

“공연 문화 척박한 광주에 자극제 됐으면”

9일 '내 이름은 오델로'

15일 '내 창문을 두드리는 전쟁'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검증받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게 주된 프로그램이다. 한국 대표 연극 연출자들이 참여해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다국적 프로젝트(한국·이란·중국 등 7개국 참여)는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다소 독특한 기획이다. 지난달 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영화 공연예술제 예술감독과 '내 이름은 오델로'(9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내 창문을 두드리는 전쟁'(15일 광주고등학교)을 연출할 권호성·박정의씨가 자리를 함께했다.

-광주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다국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뭔가.
-최영화=이번 예술제의 화두 중 하나가 장르 간·장소 간 교류와 통섭이다. 서울에서도 시도하기 어려운 작업인데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다. 성과 위주의 안전판도 생각해 보았지만 해외 네트워크의 사례들을 우리도 보고 배울 필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에 대해 소개해 달라.

▲권호성='내 이름은 오델로'는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해방 공간을 거쳐 기회주의적으로 세상을 살아온 한 인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주인공을 통해 폭력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싶었다. 5·18을 겪은 광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박정의='내 창문을 두드리는 전쟁'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전쟁이 우리에게 먼 기억도 아닌데 우린 전쟁을 잊고 지내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건 6·25를 겪었던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각국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느끼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외국 배우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프로젝트를 연출하는 데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권=한국과 중국 배우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영상과 신체적 움직임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솔직히 서울에 비해 제작 환경과 배우 인프라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국적 배우들과 작업하다 보니 어떤 이유로 움직여야 하는지 작품에 대해 이유를 찾게 되는 등 연출자도 굉장히 정교해진다. 버전업 시켜서 연말에 한차례 더 공연하고 에디션페스티벌 등 해외 공연도 추진 중이다.

▲박=이란 등 7개국 13명이 참여하는 다국적 프로젝트다 보니 언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움직임 등에 주목할 계획이다. 뚜렷한 줄거리를 가진 일방적인 연극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란 참가자의 경우 마리오네트 연기자인데 배우, 무용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어우러진다 보니 그들이 서로 충돌하고 화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듯하다. 보성 푸른연극마을 연극촌에서 함께 숙식하며 진행하는데 지역 배우들이나 학생들에게 연습·작업 과정을 오픈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연극인으로 이 기획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서울에서도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 다. 늘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라 결과물이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로 광주가 다양한 장르, 다양

한 국가가 어우러져 공동작업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해외 교류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가 적어 아쉽기도 한데

▲최=광주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 광주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외부의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 지역 배우들의 참여가 다소 미흡하지만 이제부터 토대를 조금씩 쌓고, 에너지가 흡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예술인들도 깨어날 거라 믿는다.

▲박=광주는 공연이 잘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우리 극단도 타 지역에서는 많이 공연했지만 광주에서는 '페스티벌' 때나 참여했다. 이런 시도가 분명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성과 지향적이 아니라, 실험적인 넓은 마음으로 만든 프로젝트라 의미가 있다. 광주가 세계 각국 예술인의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 문화에 자극이 되길 기대한다. 문의 062-511-12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영화(48)

- ▲광주공연예술제 예술감독
▲광주연극협회장·연출가
▲대표작 '취선록' '엘렉트라'

권호성(48)

- ▲극단 모시는 사람 삼일연출가
▲대표작 '블루사이공' '화려한휴가'



박정의(44)

- ▲극단 초인 대표·연출가
▲대표작 '기차' '선녀와 나무꾼'
▲아비뇽 페스티벌 등 초청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11일 5·18문화센터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은 10년 동안 한국 그라소와 함께 간접 퇴치를 위한 희망 콘서트를 열었다.

강씨가 올해도 어김 없이 '음악으로' 사랑을 전한다. 지난 10년 동안 간접환자가 다소 줄어들면서 올해는 그라소와 국제 NGO단체인 기아대책이 함께 행사를 꾸리고 수익금을 저소득층 어린이의 건강진진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강동석의 희망 콘서트'에서 강씨와 함께 화음을 녹인 이들은 세계적 실내악 그룹인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다.

잉글리쉬 챔버는 세계 400개 도시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1200장 이상의 음반을 녹음한 정상급 실내악단으로 다니엘 바렌보임, 피커스 주커만, 블라디미르 아슈

케나지 등과 호흡을 맞춰왔다. 연주 첫곡은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에 삽입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다. 강씨와 잉글리쉬 챔버 악장 스테파니 곤가리 함께 호흡을 맞춘다.

두번째 곡은 아름다운 선율이 인상적인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합주를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다.

피날레 곡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가운데 하나인 비발디의 '사계'로 강씨는 솔리스트로 참여한다.

티켓 가격 7만원, 5만원, 3만원. 문의 02-720-39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화가 박종석씨 '제한을 기약하고' 출간

조선말기 서화가 송태희 선생 삶·예술 조명

한국화가 박종석씨가 조선말기 서화가인 열재(念齋) 송태희(宋泰希·1872~1941년) 선생의 삶과 예술을 조명할 신간 '제한을 기약하고'를 냈다.

조선시대 말기에 화순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서화가이자 교육자인 송태희의 일대기와 함께 당시 호남지역을 풍미했던 예술인들과

회화의 역사를 한데 묶었다. 박씨는 지난 7년간 전곡을 돌며 500여점이 넘는 작품사진과 자료를 모아 격동의 역사를 살다 간 예술가의 흔과 철학을 되살려냈다.

송태희 선생은 한국 추상화의 대가인 고암 이응로(1904~1989년)의 스승으로 호남 화단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위창 오세창과 매천 황현, 근촌 백관수 등 일제강점기 시절 우국지사들과 함께 민족정신을 높인 인

물이다. 한편 박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미술상(2006년)을 수상했다. <굿디커뮤니케이션스·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국어사용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립국어원으로 부터 국어사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6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35곳과 광역자치단체 16곳에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작성한 보도자료의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언어사용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각 기관과 지자체별로 보

도자료 4~5개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 등을 사용하는 등 행정언어를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기관에는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울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국가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 3곳이 선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d@

광주비엔날레 작품작 음성 소개 서비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8회광주비엔날레(11월7일까지) 작품작을 음성으로 소개하는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mp3 파일로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의 전시 공간에 설치된 115개의 작품해

설이 담겨 있다. 작품 1개당 1~2분 정도의 해설과 함께 파일제목이 전시관명과 작품명으로 구성돼 있어 빠르게 작품을 검색할 수 있다. 음성안내기는 제1전시관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빌릴 수 있고, 신분증 및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가곡 '편지' 배우러 오세요

8일 호남신학교

한달에 한번 우리 가곡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10월 행사가 8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교 내 티 브라운 카페에서 열린다. 이날 함께 배우보는 가곡은 박원자

씨와 흥성란씨의 시에 오숙자(전 경희대 교수)씨가 곡을 부친 '편지'와 '그대는 그방'이다. 또 초청 성악가 강숙자(전남대 교수·사진)씨는 '그리움'과 '내 맘의 강물'을 선사한다. 그밖에 '산들바람', '성불사의 밤', '장안사' 등 친숙한 가곡을 함께 부르



는 시간도 가지며 회원인 김성관·박진영씨는 '고향의 노래'와 '밀양 아리랑'을 부른다. 우리가곡 부르기는 매일 둘째주 금요일에 열린다. 회비 1만원. http://cafe.daum.net/gjkrson.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근면사실/영문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박/새개별 영희/영희 010-3626-0920. 주력/새개별 영희/영희 010-3626-0920. 근면사실/영문 김현승/영희 010-8033-0114. 상세/영희 010-7570-7525. 상세/영희 010-7570-7525. 상세/영희 010-7570-7525. 상세/영희 010-7570-7525.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점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매도 3억8천. 주유소 광산구 영 491평 용적 5억 5천 10억. 대지 월산동로터부근 4차선도로면 492㎡(149평) 공시지가 5억 7천만 원 매도 4억3천만 원. 금남로5가 대지 5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8천. 주택 동구 지산동 대지 40평 공시지가 5850만 원 매도 4300만 원.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3억 2천 2억 4천. 마북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2천 5억 3천.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점 275㎡(83평) 1억 95백. 금남로 상업지 동구 주택 상업용 복합 공시지가 매도 8400만 원.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물 206평 6층 건물 5억.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건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 원림 건물 공시가격 대지 108 건물 383평 감정 11억 8천 대출 2억 5천 전세 9천 월 650 매도 6억 9천. 매도·교환. 송정동 4차선 도로면 2중주거지 856평 공시지가 13억8천 매도 16억 2천. 두암동 4차선 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 등 복합 평당 370만 원. 함평군 해보면 (문장입구) 4차선 도로면 관리지역 550평 참고·식당·공장 등 다양도 1억 9300만 원. 생선동지 참고 등 동구 광산구 비아 2722평 13억. 충효동 유실수 있는 대지 575평 대지 10평 3천. 북구 충효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 원. 생선동지 사구 덕동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 9천만 원. 자연녹지 706평 매물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 9천만 원.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 원. 화순군 한천면 임야 13.8622평 공장 등 다양도 평당 12000원. 서구 유촌동 생선동지 1631 평 참고, 공시지가 14억 3천 참고는 1년 사글세 2200만 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 원. 원림동 화정동 대지 917평 건물 145평 원림 10개 투룸 3개 스키룸 2개 주택매도 전세 1억 2천 3800 매도 5억 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별장부지 여수시 출신을 우두리 자연녹지 562평 유자나무 풀나무 많은 땅 매도 1억 2400만 원. 목욕탕 임대. 북구 일곡동 APT수선대입은곳 영일빌딩 490평 보증금 2억 월 450만 원.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건물: 65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매가: 40억 5000만원.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호등록: 41-0163369호.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010-8337-1055. 고품 조용한 숲속에 바닷가 향토 전원주택. 30평+덧밭 300평. 전세 5천 (월세로 가능). ※ 현재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공사중 완공시 (40분내내 거리임). 바닷가 전원주택 부지. 200+300+500평 있습니다. 문의 010-8337-1055